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3205.12	↑ 코스닥	811.40
	(+4.29)		(+5.98)
↓ 금리 (미국 9년)	2.460	↓ 환율 (원·달러)	1388.40
	(-0.012)		(-4.10)

美에 ‘뒤통수’ 맞은 韓 기업들 현지시설 전문인력 투입 난항

美, 韓기업 이민단속 파장

對美투자 상징 HL-GA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 구금
석방교섭 마무리·귀국 절차
美, 무차별 단속 지속될 듯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구금된 국
내기업 현지 배터리공장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교섭을 미 정부
와 마무리하고 이들의 귀국절차
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
속될 것으로 보여 현지에 대거 투
지중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
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투자 유치 요청
에 화답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차
별 단속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달 25일(미국 현지시
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양
국 간에 관세와 대미 투자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이 이어지던 중 이
같은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는 점
에서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
는 모습이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450여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출장간 한국인 30여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이 합
작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조지아주 서배나 HL-GA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이번 사태
로 전면 중단됐다. 나아가 완공
시점은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고
용 창출 계획 등도 안개속으로 빠
지게 됐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 4
일(현지시간) 공사현장을 덮쳐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 450여명을 체포
해 구금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국내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건 현지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

나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
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
업들은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 기
술 인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 관계자는 “합작 배터
리 공장은 현재 건설 막바지 단계
로 최종 설비 반입과 마무리 작업
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며 “배
터리 생산을 위한 공정 특성상 현
장에는 배터리 관련 인력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
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

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
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수조
원대 대미 투자를 단행한 국내 대
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함
께 공장 건설 등을 진행하는데 안
정적으로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
해 우리나라 전문 인력을 투입하
는데 현지에서는 비자 발급이 원
활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과 어려
움이 크다”며 “원활한 적정 비자
발급 등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현지
채용을 진행하라는 건 모순”이라
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
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
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
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
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
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뜨거운 감자’인 로보택시 등에 관한 인사이트 함께 전
달합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코스피, 허니문 랠리 썼지만 ‘검은 금요일’ 후 동력 상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앞둔
박스권 갇혀 새 동력 과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11일) 앞둔 코스피는 고공 행진
을 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트
럼프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
부진과 같은 각종 악재에도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정책 등이 국
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에 톡톡
히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
피는 새 동력을 찾지 못한 채 박
스권에 갇혀 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인 수출
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최근 경
기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신호가 실제 실물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다. 세제개편에 대한
실망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
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

인 6월 2일 2698.97이었던 코스
피는 5일 3205.12로 18.61% 올
랐다.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
령 이후 9차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직전 1위는 김
영삼 정부(12.98%)였다. 이어 노
무현 정부(3.89%), 이명박 정부
(7.88%), 박근혜 정부(-1.46%),
윤석열(-2.96%) 등 순으로 상승
률이 낮았다.

갈 길은 멀다. 지난 8월 1일 검
은 금요일 이후 코스피는 이를 만
회할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
한 채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물론 코스피의 선전이 현 정부
의 경제 성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
는 없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투자
가 비중이 크고, 수출 중심의 산
업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등 대내 요인보다는 대
외 변수에 민감하다.

〈6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lkova@

이재명 정부,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
부동산 범죄대응 조직 신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
정을 위해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실외 소
음기준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강
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렇지만 집
값 급등과 대출 증가 억제제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
V) 상한을 50%에서 40%까지 낮
추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
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
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든

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
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관련기사 2면〉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
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
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
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
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
울·수도권에 5년(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연 27만
호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3년 동
안의 연평균 공급 물량 대비 1.7
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
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급

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
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직접
개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
의 용도 전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등 대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
업 등을 통해 정체됐던 주택 사업
의 추진력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실외 소음
기준 완화 ▲교통지 부담금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등 지연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택사
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완

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
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기
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6·27 대책’ 후속조치…가계
부채 억제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
안 발표 직후 가계부채 점검회
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
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50%→40%) ▲주택매매·임
대사업자 대출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
용 등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한국직원 구금 관련 없는지 답해야”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강외구 전 부속실장·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 면직안 재가

▲李 “영화 ‘어쩔수가 없다’ 베니스 진출… 의미있
는 성과”
▲국힘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 사퇴로만 안 돼
… 징계 논의해야”

▲박수현 “당정대, 오늘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
검찰청 역사 속으로”
▲원유철 “국회, 북핵대응 비상특위 즉각 설치해
야”

규제지역 LTV 강화…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출 ‘원천차단’

〈50%→40%〉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일원화
금융기관서 매년 납부 출연요율
대출유형별 → 대출금액별 변경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위해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금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대출 공급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시행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가 8월 들어 다시 재개됐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상승도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방안’은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의 LTV를 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하는 최초 매매및 임대사업자대출, 공익법인의 주택매매업·임대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전세보증기관 3사(SGI·HF·HUG)가 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는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해,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대출의 억제를 추진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년 주택보증신용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대출유형별’에서 ‘대출금액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되며, 작을 경우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액

주담대 취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목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을 제외한 방안은 이달 8일부터 즉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해당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달 중 확정지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른 결정으로 시장 활성화
3차 추경 편성, 계획에 없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보유 유지나, 아니면 10억 원 보유 등으로 과세대상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3차 추경 편성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KBS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달 내에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빠르게 결정 내리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



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3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추경의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1·2차 소비쿠폰 중 2차 지급이 이달 22일 시작된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

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를 들었다. 이어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금년도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등의 우려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형신경제 아이템 30개 중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방향을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 착공 이후 각종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취업자수↓물가↑ 美, 금리인하 ‘고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와 동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비농업 고용지수(취업자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관세정책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수를 늘리고 경제회복을 하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높아진 물가가 금리인하를 막고 있어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7일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8월의 비농업 취업자수는 2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전인 6월(14만7000명)과 비교하면 12만5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연준, 경제회복 위해 인하 필요
물가 상승에 금리인하 가로막아
시장서 인하·동결 전망 엇갈려

자영업자 금융채무 불이행 4년새 3배 급증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금융채무 불이행자 16만1198명
초저금리 대출 이후 금리 정상화
사업자 원리금 상환 어려움 겪어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

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

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취업자수는 6월 이후 ▲7월 7만3000명에서 ▲8월 2만2000명으로 줄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7월 말 이후 나온 7월과 8월 고용지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취업자수가 급감한 이유는 물가가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를 내쫓은 영향이 가장 크다.

현재 미국의 취업자수는 약 1억7078만명으로 이 중 20%가 이주민 근로자다. 그중 절반가량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이주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추방됐거나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성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 정부 “재발방지 나설 것”

美 한국인 구금 사태

李 대통령, 조속한 해결 지시
송환 위한 전세기 출발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 주중 방미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오후(한국시간), 현지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은 마무리됐으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버니 일원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 간 벌어진 급작스러운 한국인 구금 소식에 정부는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성동 총리공관

에서 진행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對美)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당국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내로 방미할 것이며, 정해지는 대로 일정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재계 “워킹비자 등 韓美 정책지원 필요”

》1면 ‘美에 뒤통수 맞은…’서 계속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한 건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9월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처럼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미국 정부의 대규모 단속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과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구축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인디애나주 공장 착공 전 단계라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기술인력 투입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美,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삼성 등 관세 제외 가능성… 업계, 예의주시

트럼프, 반도체 밸류체인 내재화 공언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외국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반도체 밸류체인 내재화’를 거듭 공언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 조치까지 겹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투자 확대 부담과 중국 사업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IT업계 CEO들과의 만남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관세 부과 발표 시기와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미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는 관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업계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사업과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더는 VEU 자격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면제됐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반입절차가 내년부터는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정치 외교 핵심카드로 굳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으로서 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WE ARE THE NEXT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거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 2025. 9. 8. (월) ~ 9. 10. (수)
세종캠퍼스 | 2025. 9. 8. (월) ~ 9. 12. (금)
접수처 oku.korea.ac.kr

‘포용+혁신’ 투트랙… 시로 금융 패러다임 새로 쓴다

금융의 미래

* KB 금융그룹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KB금융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겠다”고 강조한다.

양 회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금융은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선 포용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우리 경제에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 포용 프로젝트… ‘지속가능 금융을 담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프로그램이 8조원 규모로 커졌다.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국가 주력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 금리우대’는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혁신 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우대 협약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최대 1.5%포인트(p)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최대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서 지난 6월 말까지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5608명, 지원금액은 총 121억9000만원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KB여의도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건네고 함께 포즈를 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보증·대출·금리우대 금융지원
출산·육아·착한가게 사회공헌

그룹 공동 AI 플랫폼 ‘젠AI’ 구축
상담·자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초개인화 서비스로 미래 금융 추진

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약 1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47개 ‘착한가게업소’를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KB마음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 KB금융, AI를 채용하다

KB금융은 그룹 내 전 아플리케이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KB AI 전략’과 ‘KBAI 에이전트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룹 주요 업무영역 약 39개 내 250여 개의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양 회장은 올해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최근 AI 기술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내부 부서장 회의에서 “AI를 외부에서 구입해(buy) 쓰려 하지 말고, 일하는 실재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하라(employ)”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AI기술을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최초의 에이전트 AI 기반의 AI 활용 환경인 ‘KB 젠(Gen) AI 포털(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KB금융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 현장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선정한 금융상담·PB 에이전트(KB국민은행), 자산관리·상담지원 에이전트(KB증권), 보험상담 에이전트(KB손해보험), 카드상담 에이전트(KB국민카드), 보험 에이전트(KB라이프생명) 등을 우선 개발 중이다.

◆ 혁신금융 지정… ‘초개인화 서비스’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KB

금융의 8개 계열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많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요 서비스는 ▲금융상담 에이전트(은행)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증권) ▲모두의 카드 생활 메이트(카드) 등이다. 계열사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 계열사들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환경인 ‘KB 젠 AI 포털’을 통해 상용 LLM(거대언어 모델)을 각 계열사별 서비스 환경에 맞게 적용·활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AI 에이전트 구현과 더불어 IT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연계한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금융 접점마다 AI 에이전트를 탑재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펼쳐질 AI 중심의 금융혁신 경쟁에서 KB가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계열사별 업무 생산성 증대 및 고객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그룹 내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창권 KB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장(두번째줄 왼쪽 일곱번째)이 ‘KB스타트업 웰컴데이’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사장님들의 힘찬 내일을 앞당기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태명상사 조성행 사장님도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프로젝트**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금융 자원과 비금융 자원을
아우르는 포용금융 지원 프로그램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이자·환급 프로그램

소상공인 컨설팅센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경영 등 맞춤 컨설팅 무료 제공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470호(2025.08.22.), 유효기간 2025.08.22.~2026.07.31. 까지

***b KB 국민은행**

국정 정상화 이어 ‘정치복원’ 나선다… 野 관계회복 시동

李 대통령 취임 100일 D-3

오늘 與野 대표와 오찬회동
장동혁과 단독 회동도 예정

정상외교 복원, 한미협상 해결
검찰·언론개혁 등 과제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은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과면 등 극도의 혼란을 딛고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는 시간이었다. 외교·통상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으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추진, 그리고 이에 따른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 의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정청래·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야당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후에는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기까지는 2년이 걸렸는데, 장 대표는 100일도 안 걸리는 셈이다. 장 대표는 앞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답이라면 영수회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전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도 단독으로 만나는 이유는 ‘정치 복원’ 때문이다.

100일 간 국정 정상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 정치의 복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의 결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 복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도·캐나다·영국·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내용이 담긴 2025년도 2차 추경안은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인 7월4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12·3 내란 이후 침체됐던 골목상권에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우려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7월31일 타결됐다. 미국의 강한 압박과 부족한 시간적 여유에도 15% 관세 부과라는 선은 지켜냈으며, 대미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지난달 23·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 후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갖고 있는 ‘진중 정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 관계

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치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곧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당정이 검찰·언론개혁 등을 원만하게 이뤄내려면 야당의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 대표, ‘윤어게인’ 세력의 강력한 지지로 선출됐으며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야당 대표가 서로 맞서는 형국이다.

또 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12·3 내란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로 밝힐 일이니, 결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여당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출됐다. 당원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선불리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당부하면, 당내 반발도 줄어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내란종식·李 정부 뒷받침” 국민의힘 “與, 반기업법 입법독재”

오는 9~10일 與野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본회의서 3대특검 연장 법안과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처 전망

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국교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복 대신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뉴시스

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개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

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마무리”

검찰개혁안 논의 진행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대는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수를 확실하게 줄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세제 개편안·美 관세 등 불안감 해소 필요

>> 1면 ‘코스피, 허니문 랠리…’서 계속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탤다.

수출 회복세는 이재명 정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올랐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지만, 6월에 반등해 3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상승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내수 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소비자수출 호조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 절대 수준은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물론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장 참여자를 내모는 세제 개편안, 미국의 물가 상승, 미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 등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고, 현 정부의 노동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불안감도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식탁의 초가공식품, 보험산업 새 뇌관 부상

비만·질환 늘어 손해율 악화
보험금 청구 증가 우려 확산
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현실화
보험업계 지속 모니터링 필요

초가공식품이 일상 식탁을 장악하면서 건강 위험이 정책·법정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규제 강화 조짐과 국내 비만·영양지표의 경고음 속에 보험업계는 장기 손해율과 제조사 배상책임 변수를 동시에 안게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건강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규제 변화 및 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2023년 평균 섭취 열량의 55%가 초가공식품에서 왔고 청소년은 61.9%로 더 높았다. 멕시코 가계 조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소비 비중은 1984년 10.5%에서 2016년 23.1%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형 NOVA 분류(식품을 가공의 정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체계)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인 식



Chat GPT가 생성한 초가공식품 보험 리스크 이미지.

단 29.3%의 열량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 고섭취군이 저섭취군보다 지방간 위험이 1.75배,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장기적으로 생명·건강보험금 청구 빈도와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초가공식품 고섭취와 만성질환·사망 위험 증가의 연관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초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15% 높고 심

혈관·호흡기·대사질환 및 특정 암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은 건강보험 고액 청구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이므로 생명·건강보험금 청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암·뇌·심 보장을 중심으로 ‘진단·치료·후유장애·사망’이 겹겹이 발생하는 장기 구조에서 위험군의 저변이 넓어지면 빈도와 평균 지급액이 동시에 오른다. IFRS17(보험회계기준) 체계에서 사고율·손해율·유지율 가정은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직결돼 미세한 가정값 변화도 장부 변동성으로 증폭되기 쉽다.

아울러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유

해성과 잠재적 중독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돼 제조·유통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식품 오염’, ‘금속 이물 질 혼입’ 등 물리적 위해에 따른 제품 리콜이 주요 보험금 청구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의도적 중독성 설계’, ‘장기적 건강 악화 가능성 미고지’와 같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제조·부적절한 판매가 새로운 소송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주요 식품 제조업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중독성이 있는 초가공식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해당 소송은 대규모·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업계 전반에 막대한 방어비용과 합의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초가공식품의 건강 유해성과 관련한 규제 변화와 분쟁 가능성은 손해보험의 제품책임·배상책임 위험과 생명·건강보험의 손해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건전성 확보 나선 저축은행, 中企 대출 축소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우려 커져
대기업 중심 기업신용대출 확대

주요 저축은행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여신을 늘리고 있는 것.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43.8%에서 2024년 39.9%, 2025년 3월 기준 37.7%로 줄었다. 반면, 최근 대기업 여신 비중은 상승했다. 대기

업 대출 비중은 2023년, 2024년 말 기준 약 1.29% 수준을 이어오다 올해 1분기 기준 1.57%로 소폭 상승했다.

모아저축은행 역시 같은 흐름이다. 모아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율은 지난 2023년 61.2%, 2024년 55.4%, 올해 1분기 기준 53.4%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 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4.9%에서 4.7%로 감소하다 다시 5.0%로 오르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업권 자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 위주에서 기

업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흐름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들의 주력 대출 상품은 소위 열위한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PF대출, 중도금 대출 등이 위주였다”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저축은행들이 기업신용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신용대출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위주로 취급하다 보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 비중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부동

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지난해 동기 대비 42.7% 감소했다. 현재까지 대출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회사채 발행까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더 심화된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F대출 대상이 되는 부동산 시행사와 일반 중소기업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금줄 마련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은행
첫 거래 손님 대상
연7.7% 비대면 적금

하나은행이 처음 거래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오늘부터, 하나 적금’을 출시했다.

올해 말까지 5만화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5.7%를 더해 최고 연 7.7%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적금 가입 전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4.7%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5% ▲적금 가입 전 하나는 행 상품 등 선택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연 0.5%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이달 둘째 주 수원 영통동 등 전국 10곳서 551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견본주택은 의정부 등 2곳 개관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마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 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아반센트레시아’ 2곳이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서 부대1지구 도시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천안아이파크 시티2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8㎡, 총 1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임대분(245가구)을 제외한 97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성성호수공원 일대는 부대지구를 포

함해 성성, 부성, 업성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9년 지하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을 목표하고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지구 A1블록에서 공공분양아파트 ‘의정부우정A1’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538가구 규모이며 이중 사전청약 공급분(300가구)을 제외한 238가구를 이번에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부로 등을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다. 버들개초, 녹양중, 경기북과학교 등이 가깝다. 견본주택은 주택전시관 관람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기준 3억6714만~3억9075만원 선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카드 News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요술과자점 유튜브 공개

KB국민카드는 7일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KB이솝우화’의 본편 2화 ‘요술과자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요술과자점은 앞서 공개한 티저 영상 ‘사장님의 보석함’과 본편 1화 ‘수수께끼 안경원’에 이은 세 번째 영상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빵을 전달해 온 50년 경력의 제과명장 민부곤 사장의 이야기가 담겼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민부곤과자점’을 운영하는 민 사장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빵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착한 가게 및 지역 나눔 가게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하나카드
카드 디자인 제안하세요
제3회 플레이트 공모전



하나카드가 ‘제3회 하나카드 플레이트(Plate)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 참여자들이 ▲영 프리미엄카드 ▲지역화폐

카드 ▲시니어카드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정해 디자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참신성, 트렌디함, 활용성, 적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1등(1명) 500만원, 2등(2명) 각 200만원, 3등(4명) 각 100만원, 4등(10명)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상작은 오는 11월 21일 하나카드 공식 홈페이지, 하나페이 애플리케이션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는 내달 19일까지다.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구월점
오픈기념 경품 이벤트

삼성카드는 자사와 단독 제휴를 맺고 있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구월점’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삼성카드는 이달 21일까지 트레이더스 구월점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보낸백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추억의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 ▲냉장 외구 모뎀 ▲세타필 크림 등 경품도 제공한다.

행사대상인 트레이더스 제휴카드로는 ▲트레이더스 클럽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 5 ▲트레이더스 삼성카드 비즈 ▲트레이더스 삼성카드 비즈 디스카운트 등이 있다. /안재선 기자

효성중, 차세대 전력망 대응… 생산능력·HVDC·R&D 총력

창원 HVDC 공장 신축·북미 증설
국산화 성과 기반, 글로벌 시장 공략
2분기 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기록
주가 123만원 돌파, 기업가치 급등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의 ‘슈퍼 사이클’을 발판삼아 차세대 전력망과 전력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확산,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전력기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은 공격적인 증설 및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 중이다.

7월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공장 신축, 연구개발 투자까지 병행하며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 창원과 미국 뎀피스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입,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 올해 6월 창원공장의 증설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내년 완공을 목표로 뎀피스 공장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두 거점이 모두 가동되면 전체 생산능력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효성중공업

현재보다 약 40% 늘어난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차세대 HVDC 전용 생산거점 확보에도 나섰다.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약 2540억원을 투입, 창원공장의 약 2만9600㎡ 부지에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을 신축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HVDC 변압기 전용 공장 신축을 포함해 HVDC 핵심 설비인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시스템’ 제작 시설 증축과 연구개발(R&D) 추진 등에 향후 2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효

성중공업은 유럽 업체들이 선점한 HVDC 시장에서 입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수년간 이어온 HVDC 국산화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2017년 조현준 회장의 지시에 따라 HVDC 국산화에 도전했다. 실적 부진 속에서도 7년간 연구개발에 1000억원을 투입한 끝에 지난해 200MW급 전압형 HVDC 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GE, 지멘스, 히

타치 등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시장에 균열을 이끌어냈다. HVDC는 기존 HVAC(초고압교류송전) 대비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송전할 수 있고, 사막 태양광·해상풍력 등 원거리 발전원에서 수백~수천㎞ 떨어진 수요처까지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어 재생에너지 연계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슈퍼그리드)에 최적화된 기술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22억 달러 규모인 HVDC 시장(컨버터 스테이션, 케이블 제외)은 연평균 8.1% 성장해 2034년에 2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VDC를 비롯한 전력기기 전반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효성중공업의 수주는 우상향추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공업 부문 신규 수주는 2조197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4% 늘었으며, 수주잔고는 10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북미 시장 신규 수주 비중이 53%를 차지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253억원과 영업이익 164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28% 늘었고, 영업이익은 162% 급증했다.

이같은 실적에 힘입어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연초 39만3000원 수준이던 효성중공업 주가는 7월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뒤 현재 123만원까지 치솟았다. 조현준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크게 불어났다. 지난 5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시간 외 매매로 45만6903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은 14.89%에서 9.99%로 낮아졌지만, 주가 급등으로 전날 기준 지분 가치는 1조1474억원까지 늘었다. 매각 직전만 해도 지분 가치는 8329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이 확보한 수주 물량과 공격적인 증설 기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공격적인 증설은 단순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전력망 투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전망”이라며 “증설이 확정되고 북미 매출이 본격화에 오르는 2027년에 중공업 부문 영업이익은 약 9600억원으로 추정되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17.6%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포스코, HMM 인수… 몸값 급등에 재무부담·효과 ‘의문’

몸값 두 배 뛰며 인수자금 7조 부담
설비투자·현금유출 겹쳐 재무 압박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 선사 HMM 인수를 추진하는 등 신성장 전략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그룹은 물류·수소·첨단소재 등 다각적 성장 발판을 찾고 있다. 다만 HMM건은 시너지효과와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삼일PwC, BCG, 대형 로펌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HMM 인수를 들여다본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 사옥.

/포스코

포스코는 과거 HMM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철강과 이차전지 사업 모두 장기 부진을 겪으면서 신사업 발굴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해운업 진출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의 연결기준 2023년 매

출은 77조1272억원, 영업이익 3조5314억원 기록했고 지난해는 72조6881억원, 영업이익 2조1736억원까지 위축됐다. 올 상반기는 매출 34조9930억원, 영업이익 1조1750억원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포스코그룹은 HMM 인수를 통해 물류망 안정화와 사업 다각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철광석·석탄 등 원재료를 들여오기 위해 벌크 물류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면서 자체 운송 네트워크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HMM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로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인수 시 포스코는 안정적 물류망과 신성장 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시너지와 재무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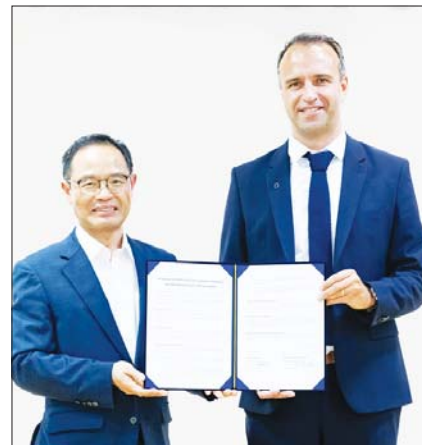
포스코는 국내 해운 물동량의 1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비 절감을 노린 인수 명분은 있지만, 포스코가 주로 활용하는 벌크선과 달리 HMM 매출의 80% 이상은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해 직접적 시너지는 제한적이다.

또한 HMM의 몸값도 최근 2~3년 사이 치솟았다. 지난 2023년 하림그룹이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에 나섰다 당시 HMM의 시가총액은 11조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시가총액(시총)은 약 23조5000억원이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 약 30%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이는 시총 기준 약 7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2분기 현금성자산은 16조5000억원, 순차입금이 10조9000억원 수준으로 인수 여력은 있지만 올해 설비투자(Capex) 계획이 8조8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지난 5일 서울 서 강남구 르노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오른쪽)과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이 ‘LPDi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대한LPG협회

**친환경·경제성 잡는다
LPG 하이브리드 개발**

르노코리아는 대한LPG협회와 ‘LPDi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LPG 직분사(LPDi·LPG Direct Injection)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풀 하이브리드 양산 차량 개발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LPG 직분사 엔진은 고압 연료펌프를 통해 액체 상태의 LPG를 실린더 내에 직접 분사하는 4세대 시스템이다. 기존 LPLi 엔진 대비 높은 효율을 발휘하지만 아직 국내 양산 승용차량에 도입된 사례는 없다.

르노코리아는 LPG 직분사 엔진에 직렬형 듀얼 모터 구동의 하이브리드 E-Tech 시스템을 결합해 경제성을 극대화한 풀 하이브리드 양산 차량을 개발하고 수년 내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發 성과급 쇼크… 산업계 ‘임협 긴장’ 고조

SK하이닉스, 직원 3만명에 1억 지급
성과급 상한선 폐지… 새 기준 부상
자동차·조선업계까지 확산 조짐

SK하이닉스가 ‘1인당 평균 1억원’이라는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재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는 임금 인상률 6.0% 인상과 함께 성과급 상한선인 ‘기본급의 100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올해 3조1200억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반기보고서 기준 본사 직원 수는 3만3625명(미등기 임원 포함)으로, 개인당 1억원 이상 책정될 전망이다.

애플 사측은 이같은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자는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갈등을 겪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해 진행된 ‘이전포럼 2025’에서 “성과급이 ‘3000%, 5000%까지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국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다른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경영진에 공식 요구했다. 전

삼노는 지난 4일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계도 SK발 10% 성과급 불뚝이 옮겨붙지 않을까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3~4일 2시간씩 이어 5일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20차례 교섭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여부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韓 주도 ‘제주 이니셔티브’ 채택… 21개국 협력 네트워크 작동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한성숙 중기부 장관 국제무대 데뷔
中企 현안 등 한국적 의제 지지·공감
“각국의 혁신 역량 실질적으로 연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제들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

전체 기업체 숫자의 9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회복력 제고, 글로벌화, 혁신 역량 강화, 연결성 확대, 규제 해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내용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가 21개국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후 공동성명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APEC 역내 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 정도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이 지난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마치고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지난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한국이 주도해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를 채택하고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당일 저녁 늦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문장 하나 하나에 예민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선언문을 도출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마치 하나의 정부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책도

유사했고 방향성도 유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APEC을 포함한) 전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를 출발점으로 해 연례적인 스타트업 포럼 개최와 함께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회원국 정부, 투자자, 스타트업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성장으로 이어가는 성과지향형 협력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먼저 제안한 것을 토대로 회원국 실무진이 수 차례의 미팅과 토론 등을 통해 내용을 다듬고 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한 만큼 공동성명서에 포함된 의제 내용 중 60~70% 정도의 지분은 한국 것이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

rosa) APEC 사무국장은 “한국의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한때는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갈길이 멀고 도전과제도 있지만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으로 지난 7월23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완벽하게 데뷔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 非디스플레이 스마트안경 준비… ‘확실한 길’ 택해

내년 출시 목표로 자체 브랜드 개발
“개발 단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메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스마트안경을 앞다퉈 내놓는 가운데, 삼성은 비(非) 디스플레이 제품을 차세대 디바이스로 준비하고 있다. 시장 진입이 늦다는 시각도 있으나 아직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전략적 관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형 스마트안경 ‘하이퍼노바’를 내달 공개한다. 알리바바 역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퀵 AI 글라스’를 연내 출시할 방침이다. 반면 삼성은 화면 없는 비디스플레이 스마트안경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초기 스마트안경 시장은 대부분 비디스플레이 제품 위주로 형성됐다. 메타가



MWC 2025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확장현실(XR) 기기 ‘프로젝트 무한’.

지난 2023년 출시한 ‘레이벤 메타’는 카메라와 AI 기능에 집중한 비디스플레이형 제품으로, 지금까지 2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스마트안경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부재로 인해 알림·정보 표시 등의 기능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디스플레이 탑재형으로 제품 개발 방향을 바꾸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디스플레이형 스마트안경의 장점은 활용도가 넓다는 점이다. 문자·알림·지도 정보 등을 눈앞에 바로 띄워주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디스플레이 단가로 인한 높은 가격대가 걸림돌이었으나 메타의 차세대 모델 ‘하이퍼노바’가 800달러(한화 약 111만원)부터 시작해 당초 예상치인 1000달러(한화 약 139만원) 이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알리바바 신제품도 이와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부담이 완화 추세다.

삼성도 이 같은 흐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카메라·스피커·AI 기능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없는 스마트안경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 중이며, 동시에 구글과 협력해 디스플레이 탑재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다. 타 기업들이 경량화된 스마트안경, 특히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삼성전자가 시장 진입에 다소 뒤처지고 있다고 읽힐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삼성의 비디스플레이 전략이 대중성과 시장 성숙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관망’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AI 스마트안경 출하량의 약 78%가 아직까지 레이벤 메타와 같은 비디스플레이 제품이었다. 또한 아직까지 디스플레이형 제품이 배터리를 발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기술이 성숙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삼성이 개발 중인 비디스플레이형 스마트안경이 ‘확실하고 안전한 길’인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는 아직 개발 단계이며 출시할 즈음에 제품·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경기 구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코웨이 직영점 전경.

코웨이, 구리 직영점 오픈

롯데백화점 구리점 입점

코웨이가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구리점 7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구리 직영점’을 오픈했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 갤러리 구리 직영점에서는 ‘하이온 얼음정수기 스탠다드·미니·오리지널’ 등 세분화된 얼음정수기 라인업을 기반으로 크기 및 얼음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상의 “금융권, 부동산 자금쏠림 현상 심화… 제도 정비 시급”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조정 등 제안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

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현행 규제체계가 이런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금융사가 기업대출에 나설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CVC 투자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주회사의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지난해 일반지주 167개사 중 14개사만이 2451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대한상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권에 부담을 더하는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법 개정 안처럼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할 경우, 60여개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 원의 추가세 부담을 안게 된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 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홈쇼핑

‘소재 확인 QR코드’ 도입

홈쇼핑이 QR코드로 진위여부를 확인, 제품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홈쇼핑은 라이브 홈쇼핑 업계 최초로 의류 상품에 ‘소재 진위 확인용 QR코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QR코드는 상품의 브랜드 TAG에 인쇄되며 소비자가 스캔하면 해당 상품의 소재 감별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재 감별 시험은 공신력 있는 KATRI 시험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진행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캠핑·예술전시 등 콘셉트 다양

K-게임, 단순 오락 넘어 복합문화로

Q 르포

2025 게임문화축제

“외국인 친구랑 같이 왔어요. 서울 여행 중인데 이렇게 게임을 직접 체험할 줄은 몰랐어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 '2025 게임문화축제'는 게임이 세대를 잇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도시 속 축제 자리 잡았다.

지난 5일 낮, 서울 광화문 하이커 그라운드. 게임 IP 체험존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은 K컬처를 대표하는 게임을 직접 만지고 즐기며 그 매력을 체험하고 있었다.

지난해 에버랜드에서 열린 행사와 달리 도심 속 열린 공간 덕분에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특징이다. 회사원, 학생,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공간은 활기를 띠었다.

각 부스는 게임의 세계관을 현장으로 옮겨왔다. 크래프톤의 '인조이' 부스는 휴양지 같은 분위기로 꾸며져 관람객이 의자에 앉아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체험존에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우주선이 이륙할 듯한 몰입형 연출이 이어졌다.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모닥불과 캠핑 콘셉트로 풀어내 관람객에게 휴식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했다.

곳곳에서 '문화'로 확장된 게임의 얼굴도 보였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고 있는 2025 게임문화축제의 입구. 2025 게임문화축제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지며 휴관일인 8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오는 14일까지 서울 광화문서 열린 크래프톤 '인조이', 넥스 '마비노기' 등 각 부스서 게임 세계관 직접 경험 IP 활용 사회적가치 사례도 소개

스마일게이트 히망스튜디오는 '로스트아크'와 '로드나인' 등 IP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소개하며 게임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보여줬다. 4층 '아트그라운드'에서는 주요 게임사의 원화가 전시돼 팬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작품을 감상하며 게임을 예술로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 전시관을 나서면 게임 OST가 흐르는 음악 감상존이 분위기를 이어갔다.

체험존을 거니는 내내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팬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토존에서 AR 홀로그램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는 관람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놀이와 예술, 사회공헌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축제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주말에는 '디그 오브 레전드'와 '이터널리턴'을 종목으로 한 'GCF 이스포츠 리그' 본선이 무대를 달구고, 인기 게임 OST 공연이 광장을 채우고 있다. 현장 열기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2025 게임문화축제'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지며, 휴관일인 8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와 예술, 나눔으로 확장되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소액결제 피해 즉각 대응

경기도 광명시, 서울 금천구서 발생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한도 일시 축소 신속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안 마련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KT 이용자 대상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초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기 광명에 이어 인접해 있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명 지역 피해자 수는 26명이다. 금천에서는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도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KT는 지난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경기도 광명·서울 금천 지역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유사한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사기관 및 관계 정부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KT는 우선 휴대폰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결제의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하고, 피해 지역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이상 거래가 발견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새벽 시간대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시민 26명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이용자이며, 피해 금액은 약 1769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피해자들이 늦은 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이어졌다. 서울 금천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킹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당국은 실제 해킹과 연관된 사건인지, 내부 결제 시스템 문제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네오위즈, e스포츠 인재양성·신사업 발굴

T1 e스포츠 아카데미와 ‘맞손’

네오위즈는 글로벌 e스포츠 구단 T1이 운영하는 ‘T1 e스포츠 아카데미(T1A)’와 e스포츠 기반 인재 양성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T1A의 전문 교육 과정에 네오위즈의 개발 실무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오위즈는 T1A 수강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마케팅 협력과 함께 e스포츠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공동 모색한다.

T1A는 T1이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프로게이머 양성과 더불어 e스포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인재 육성을 목



지난 4일 (왼쪽부터) T1A 최원준 헤드와 네오위즈 최우혁 브랜드 디렉터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1 샵'에서 열린 '네오위즈 X T1A'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네오위즈

표로 한다. 전·현직 프로게이머와 감독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실전 경험 기반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유스 시스템을 활용한 멘탈·기술 성장 지원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PTE'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SKT, 日 기업·벤처캐피탈에 AI 기술·서비스 소개

‘K-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 행사

SK텔레콤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K-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을 개최하고 한국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AI 얼라이언스가 일본에서 연 첫 공식 행사로, 현지 주요 기업과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멤버사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협력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주요 대기업과 프리퍼드 네트워크를 비롯한 AI 관련 스타트업, NTT 도코모 벤처스, PKSHA 등 일본 벤처캐피탈이 참석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을 개최, 일본 산업계에 한국 AI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날 K-얼라이언스 멤버사 중 ▲인공지능 전환 분야에서는 셀렉스타·스튜디오랩·마키나락스·올거나이즈 ▲AI 인프라 부문에서는 엘리스그룹·래블업 ▲AI 로보틱스 파트에서는 리얼월드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스캐터랩·라이

너·XL8·이모코그·사온더블헬스 등이 자체 보유한 AI 솔루션을 발표했다.

향후 SKT는 K-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국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레고랜드 페스티벌’ 초대 행사

장기 이용·VIP 멤버십 고객 대상

LG유플러스는 내달 개최되는 레고랜드 페스티벌에 장기 이용 고객과 VIP 멤버십 고객을 초대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가을을 맞아해 장기 이용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멤버십 혜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레고랜드 페스

티벌 초대권 증정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장기(5년 이상)·VIP 고객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당첨된 고객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레고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페스티벌은 다음달 11일부터 3주간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윤하·범진(1주차), 10CM·신인류(2주차), 에일리·정세운(3주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참가 희망자는 유플러스 멤버십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8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이달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LG유플러스는 총 1900명의 고객들에게 페스티벌 초대권(2매), 레고랜드 입장권(2매), 무료 주차권을 선물한다.

/김현정 기자

‘관료출신’ 이현승 vs ‘증권맨’ 황성업 vs ‘現 회장’ 서유석

차기 금투협회장 누구?

금투협회장 선거 3개월 남짓
이현승·황성업 공식출마 선언에
서유석·박정립·정영채 등 거론
10여명 잠재후보… 기대감 상승

차기(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돌아오고 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현재 두명이지만, 잠룡들까지 포함하면 10여명이 잠재 후보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투표권을 쥔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나 기대감은 예전보다 큰 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표는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여러 금융사에서 최고경영자(CEO) 생활을 했다.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다가 GE에너지코리아를 거쳐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금융투자협회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립 전 KB증권 대표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

비상근 부회장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 당국과 매끄러운 소통을 책임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소신으로 주목받는다.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도 지난 5일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황 사장은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38년째 한 곳에서 일한 정통 ‘증권맨’이다. 자산운용, 법인사업, 투자은행(IB), 경영총괄 등 분야를 두루 거쳐 각자 대표로 승진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1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서유석 현 금투협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도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

다. 회원사 사이에서는 ‘화합형 리더’라는 중평을 받고 있다. 다만 금투협에서 지금껏 회장 연임 사례는 없다.

이외에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NH투자증권 전 사장), 박정립 전 KB증권 대표, 김신 전 SK증권 부회장, 장석훈 전 삼성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협 선거에서 가장 표결 영향력이 큰 ‘빅3’는 미래에셋그룹과 한투그룹, NH금융지주그룹이 꼽히는데, 현 서유석 회장이 미래에셋 출신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인 만큼 이번엔 한투와 NH투자 측이 회장을 배출하고 싶어 할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정영채 고문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은 태풍의 핵으로 주목받는다.

유 부회장은 증권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아 온 인물이다. 1998년 옛 대우증권에 입사해 증권업계에 발을 디딘 유 부회장은 대우증권 런던법인 재직 시절 한국 주식 거래량의 5%를 혼자 매매해 ‘전설의 제임스’로 불리기도 했다. 2007년 47세의 나이로 증권업계 최연소 CEO가 됐다. 이후 한

국투자증권을 업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놔고, 2018년 정일문 부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정 고문은 대우증권에서 증권업의 첫 발을 뗀 뒤 2005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IB사업부 담당 임원을 13년간 역임했다. 당시 인수금융(IB) 리그테이블 선수를 놓치지 않았고 IB와 인수·합병(M&A) 사업을 개척하는 등 증권업계의 IB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대표적 인물로 통한다. 2018년 3월 22일 NH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성과를 매년 경신하며 3연임 CEO로 남았다. 다만, 정 고문이 올해 2월 메리츠증권의 IB 담당 상임고문으로 영입된 만큼, 단 기간에 지금 자리를 포기하고 회장 ‘출사표’를 쓰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금투협은 올해 11월 후보추천위원회(후추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한다. 후추회가 최종후보를 확정하면 올해 12월 중반에 임시 총회가 열려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건우 기자 geon@metro.co.kr

해외서 발 빼는 K-운용사… ‘우물 안 개구리’ 우려

‘K-자산운용사’ 현실

삼성·신한·키움 등 7대 운용사 중
미래에셋만 두자릿수 해외법인 보유
6곳은 현지법인 줄이거나 아예 없어
“순이익 하락, 수수료 깎기 경쟁 우려”

글로벌 투자전쟁에서는 소외되면서 국내에서만 존재감을 발휘하는 ‘우물 안 개구리’. 글로벌 금융 리더를 꿈꾸지만 실상은 세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이 ‘K자산운용사’의 냉정한 현실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운용자산(AUM) 50조원 이상인 국내 자산운용사 7곳(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한화·KB·NH아모디) 중 두 자릿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해외법인을 늘린 곳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KB자산운용은 2023년 말까지 3곳



ChatGPT로 생성한 ‘해외 현지 법인을 청산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이미지’

이었던 해외 법인을 지난해 4곳으로 늘렸지만, 연내 중국 상해 현지 법인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 외에도 삼성자산운용이 4곳에서 3곳, 한화자산운용이 3곳에서 2곳, 신한자산운용이 1곳에서 0곳으로 줄어들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곳, 키움자산운용은 1곳을 유지했다. NH아모디자산운용의 경우

는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움직임이 전무하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상해 법인은 소수 리서치 인력만 배치돼 있고 운용은 하지 않았던 만큼 해외 네트워크의 자원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중 중국 상해 현지법인을 청산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해 타 지역 진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중국 텐진 법인을 정리했다. 같은 해 신한자산운용도 홍콩 법인 자산관리 사업 기능을 본사로 통합하면서 현지 법인을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한화자산운용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중심 거점으로 중국, 홍콩, 동남아 등 범아시아 사업을 통합했다”면서 “중국 관련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 중이며, 기존에 중국법인이 리서치 업무를 했었고 본사에도 리서치업무를 하는 중국인 운용역이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잔뜩 몸을 웅크리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만은 예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소극적이었던 2003년 12월, 국내 최초의 해외운영법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설립을 이뤄냈다. 이후 2006년에는 인도를 시적해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16개 지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수 인하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 시장의 규모는 커질 수 있으나 순이익은 오히려 부담”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과도한 수수료 깎기 경쟁을 우려하고 있고, 현재의 수익 구조나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하이에 발레스(Jaime Valles·왼쪽) AWS 아시아·태평양·일본총괄 부사장과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4일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AWS AI·클라우드 혁신 맞손

메리츠증권은 지난 4일 장원재 대표와 하이에 발레스(Jaime Valles) AWS 아시아·태평양·일본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략적 협업은 지난 6월 AWS와 차세대 AI금융플랫폼 개발을 위해 맺은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이다. 이날 장 대표와 하이에 발레스부사장은 안정성·확장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메리츠증권은 AWS 생성형 AI 혁신센터(GenAI Innovation Center)와 협력해 주식 종목 선별, 대화형 챗봇(ChatBot) 등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AWS생성형 AI 혁신센터는 AWS가 총 2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AI 특화 조직이다. 메리츠증권은 AWS생성형 AI 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투자 지원과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은 이와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IT 시스템을 AWS의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진행하고, 금융권 제도와 환경에 최적화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국민연금, 1년간 해외기업 46곳 주총서 의결권 행사

43개 기업 미중시 상장 종목
385개 안건 중 93건에 ‘반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기업의 시장가치 제고를 통한 초과수익 창출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책임투자를 이와 조화시키려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최소 46개 해외기업 연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

출한 보고서와 기금공시 내역을 보면 이 중 43개 기업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었다. 국민연금은 총 385개 안건 중 93건(24.2%)에서 반대 혹은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주제안이 아닌 이사회가 제출한 표결 의안(293건)만 보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1.5%(268건)에 이르렀다.

반대한 안건은 사외이사 장기 연임이나 주주총회 전자화, 과도한 임원 보수 승인 시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에

대해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으로 충실의무 수행 관련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알파벳 주총에서 임원 재선임에 반대한 것도 눈에 띈다.

기업가치 하락이나 주주 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치적·이념적 목표를 위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주주제안 안건들에는 대체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1년 사이 주주제안 의안을 주총에 상정한 26개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은 총 92건의 주주제안 중 68건(73.9%)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열린 마이크로소프트(MS) 주주총회에서선 전체 6건의 주주제안 중 ‘군사용 제품 개발 현황 보고’, ‘인권침해 국내 데이터 사업 운영 보고’,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톨 보고’ 등 5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열린 애플 주총에선 ‘AI 데이터의 윤리적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보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중단 요청’, ‘기부금 정보 보고’ 등 3건의 주주제안에 반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남부발전, 텍사스 에너지시장 공략 200MWh급 BESS 프로젝트 추진

HD현대일렉트릭과 EPC 체결
1억2000만달러 사업비 투입
국내 기술·자본 100%로 추진
차익거래 구조로 안정수익 노려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약 1억2000만 달러(한화 1600억 원) 규모의 텍사스주 200메가와트시(MWh)급 BESS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북미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4일 HD현대일렉트릭과 ‘루틸 BES S 사업’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이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국내 기업이 대규모 BESS 단독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력가격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시장을 겨냥해 추진됐다. 전력이 저렴할 때 저장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해 판매하는 ‘차익거래(Arbitrage)’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노린다.

총사업비 약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부발전이 최대 주주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리한다. 알파자산운용과 KBI그룹이 공동 투



남부발전과 HD현대일렉트릭이 지난 4일 ‘미국 루틸 BESS사업’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한상 KBI 그룹 부회장,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김경기 HD일렉트릭 사장,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자로 참여하고, HD현대일렉트릭이 EPC를 담당한다. 전 과정이 100%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뤄져 ‘K-배터리 밸류체인’의 글로벌 확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불안정성이 커진 텍사스에서 BESS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선제적 진출을 계기로 미국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가스복합 중심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

오를 BESS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사업으로 확장,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나일스, 트럼볼 복합발전 등 기존 북미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순수 기술과 자본으로 힘을 합쳐 미국 핵심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BESS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산란계 기준 강화 미뤄 농가 최대2년 늦춰 적용

정부가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시행을 2년 늦춘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산란계협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입식(들어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확대한 0.07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이 같은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 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아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전력설비 진단 신사업 가속

독일 MR과 예방진단 공동 추진
SEDA 성과 기반 해외 시장 확대
1000억 절감 효과로 글로벌 공략

한국전력이 독일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손잡고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전의 독자 기술력과 MR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럽을 비롯한 183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선도 기업 MR과 예방진단솔루션(SEDA)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전의 기술 경쟁력과 MR사의 영업망을 결합해 글로벌 신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가 참석해 실시간 설비 상태 점검, 고장 사전 예방 등 양사 기술을 접목한 통합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전이 개발한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는 설비 진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15건 이상 사고를 예방하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실종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여근택 한국전력 송변전운영처장(가운데)이 윌프리드 브로이어(Wilfried Breuer) MR사 CEO(오른쪽) 등과 예방진단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넓히고 있다.

독일 MR사는 변압기 전압조정장치(OLTC)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183개국에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는 기존 강점을 예방진단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한전과 함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로벌 예방진단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며 향후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전과 맞물려 각국 전력회사의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이번 협력이 전력설비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주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 체결

美 컨버다인 협력… 에너지 안보 강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내 유일의 우라늄 변환시설 운영사인 컨버다인(ConverDyn)과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컨버다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우라늄 변환(Conversion)은 채굴·정련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육불화우라늄 형태로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컨버다인은 현재 미국에서 상업용 변환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북미 지역에서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미국 내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한미 정상외교 성과, 센트루스(Centrum)와의 협력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올림피자 본사, 포크 등 공산품 강매

공정위, 불공정 거래에 1.7억 과징금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

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점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장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도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해 임금체불 1조3421억… 17만명 피해

노동부, 첫 시·도별 체불 현황 공개
수도권 체불 6974억 전체 절반 넘어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

쳤다. 경기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경북도, ‘다양성·전통성·유연성’으로 도민과 미래혁신 추진

경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

인간 중심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영상 ‘미래에서 온 편지’ 눈길
이철우 “2045년, 세계 중심 설 것”

경북도는 지난 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을 열고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준비하기 위한 도정 비전을 제시했다.

선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형동 국회의원, 22개 지자체장과 도민이 참석해 경북의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행사는 미래학자 클레멘트 베졸드 박사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의 비전 개요 설명, 인공지능(AI) 도지사의 ‘미래에서 온 편지’, 2045 미래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미래 비전으로 ‘전통과 혁신



지난 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

/경북도

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다양성·전통성·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선언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졸드 박사는 강연에서 “진정한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겠다는 대담한 약속”이라며 “경북은 가치·기술·공간 혁명을 통해 복지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간 중심네트워크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석 교수는 미래비전 2045가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위기, 농업업 개방, 산업구조 개편, 환경 규제 등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도민과 소통·협력할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고속 비행기가 취항한 대구경북 신공항, 첨단과학도시에서 열리는 홀로그램 글로벌 포럼, AI 로봇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미래 장면을 담은 ‘미래에서 온 편지’가 영상으로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로 쓰는 편지’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경북의 ‘미래비전 2045’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자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에 서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 비전을 실천해 경북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낙동강협의회

낙동강 페스타 방문인증 행사

경남 낙동강협의회(양산·김해·밀양, 부산 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7개 지자체의 대표 가을축제를 연계한 낙동강 페스타(FESTA) 방문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페스타는 낙동강을 따라 펼쳐지는 축제를 하나로 묶어 공동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축제 현장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지정 해시태그(#낙동강협의회, #참여한 축제명)와 함께 게시하면 자동 응모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청도군

강릉 가뭄에 생수 7만병 지원

청도군은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일 생수 7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18톤 화물차 8대가 투입돼 현지까지 직접 운송이 이뤄졌다.

최근 강릉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청도군은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인재개발원

HDR 교육과정개발 ‘장관상’

부산시 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개발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콘테스트는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과 공율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다.

시 인재개발원은 이 대회에서 전체 2위로 입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재개발원은 자체 개발한 ‘초임팀장 역량맞춤형 원데이(1DAY) 집중교육’으로 이번 콘테스트에 출전했다. 전문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으로부터 교육과정 설계의 혁신성과 현업 적용도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화순군

오늘부터 ‘화순팜’新시스템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군대표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을 전국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형 모델로 전면 개편하고, 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단방향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맞춤형 추천 ▲기업 전용 대량 구매 채널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협업 등 양방향 유통혁신 플랫폼을 구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공공 쇼핑몰 중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영암군-장흥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 성장 지원 모델 구축

영암군(우승희 군수)과 장흥군(김성군수)이 손을 맞잡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 양군은 지난 5일 장흥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과 연계된 것으로, 영암군과 장흥군은 각각이 보유한 바이오소재, 산업기반, 혁신 주체를 집적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로 지구 지정 시 국비 지원 인프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영암군-장흥군, 그린바이오 육성 상생 업무협약.

/영암군

이날 협약식은 양 군수와 부서 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관련 지역 인프라 협력 ▲행정지원과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입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총 90억 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청림·일월동, 공모사업 최종 선정
고령 친화 생활마을 조성 계획

포항시 청림·일월동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 빈집·공터 활용,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림·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노후 건축물 증가, 철강공단 배후의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돼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항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구상을 마련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에는 포항을 포함해 10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공해 문제 해결, 맑은 충전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삼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고령 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해 ▲일월청림 건강센터 조성 ▲집수리 동행사업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일월청림 클린센터 조성 ▲도시재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와 지역기업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호국역사문화관 조성,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청림·일월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6년 본격 착수해 202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지역자활센터 10곳 ‘최우수·우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16개 광역시도 중 최다 선정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해운대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10곳 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부산 18개 지역자활센터 중 10곳이 선정됐다. 16개 광역시도 중 부산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역량을 향상해 자활 참여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자 자활역량 증진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전문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총 16개 세부 지표로 진행됐다.

평가에서 ▲북구-해운대·기장 지역자활센터 총 3곳이 최우수 센터로 ▲동래·부산진·사하·동구·북구·영도·강서구 총 7곳이 지역자활센터가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3개 센터는 특히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참여자 자활역량 증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3개 센터는 각각 2000만원, 우수 등급 7개 센터는 각각 1519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 시행 정책… 내년부터 반영

광주시가 직장인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반영돼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정책으로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하고 있다.

첫 시행 당시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 올해 500명·4억원으로 늘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정책은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

또 정부는 광주가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문의했으며 지난달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광주=양수영 기자

친환경·출점제한 규제… 주류·SSM업계 ‘긴장’

페트병 재생원료 생산 의무화에 주류업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이트진로 등 ‘ESG 차원’ 동참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곧 만료 민주당서 5년 연장 개정안 발의 업계 “규제강화, 역효과” 반발

친환경 규제와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주류업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페트병 제품의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 원료 사용을 예상하며, 2026년까지 사용 비율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제주개발공사, 동아오츠카 등 주요 음료사는 이미 투명 페트 전환 및 재생원료 적용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주류업체다. 맥주 페트 매출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유통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

/썬종욱 기자

비중이 연간 약 15%에 달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맥주사들은 캔·병 위주로 가면서 페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용량 페트 선호가 강하다.

업계는 품질 유지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갈색·초록색 페트를 고집해 왔지만, 이는 재활용성이 떨어져 글로벌 트렌드인 무색 페트 전환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투명·단일막 구조로는 탄산을 유지하기 어렵고,

맥주는 햇빛과 산소에 민감해 맛과 향을 보존하기 힘들다.

롯데칠성음료가 투명 페트 전환에 성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자율협약 이행에 실패했다. 다만 업계도 변화를 피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7월 ‘필라이트 1.6L’ 페트 제품에 재생원료를 적용했고, 연말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산 유지와 품질 안정성이 관건이지만, 결국 ESG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11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투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10년 전 논리로 시장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석 구도상 민주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쿠팡 등 e커머스과 식자재마트는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면, SSM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등 제약을 그대로 안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온라인 유통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기간 쿠팡의 식품 카테고리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잠식했다.

결국 유통·식품업계 전반은 잇따른 규제 강화 흐름이 업황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친환경 규제와 영업 규제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와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진행 중인 K리그X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를 체험하고 있는 모델의 모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K리그 X 산리오 팝업

롯데백화점이 이달 18일까지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2025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DIY 커스텀존’과 ‘초대형 마이멜로디 에어별론’, 포토월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오프라인 한정 상품인 ‘리유저블 백’, ‘아크릴 키링’ 등 인기 굿즈도 선보인다. 산리오캐릭터즈는 ‘헬로키티’, ‘쿠로미’ 등 다양한 캐릭터로 구성된 산리오의 대표 브랜드다.

오는 11일에는 수원FC 소속 이용, 안현범, 안드리고, 조소현 선수가 현장을 방문해 팬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롯데 유통군-네이버, AI·쇼핑·마케팅·ESG ‘맞손’

오프라인 유통망-AI 결합 유통 특화 ‘에이전틱 AI’ 개발

롯데 유통군과 네이버가 AI(인공지능)와 쇼핑, 마케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롯데의 오프라인 유통망과 네이버의 AI 기술을 결합해 유통 특화 ‘에이전틱 AI’를 개발하는 등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이달 5일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이뤄졌다.

협력의 핵심은 AI 분야다. 양사는 롯데 유통군의 ‘에이전틱 엔터프라이



롯데유통군과 팀네이버가 전략적 업무 제휴를 하는 모습.

/롯데유통군

즈(Agentic Enterprise)’ 전환을 목표로 쇼핑, 상품기획(MD), 운영 등 유통 특화 인공지능 개발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쇼핑 분야에서는 롯데마트, 하이마트 등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세븐일레븐 등 오프라인 매장 상품을 네이버 쿠팡커머스 ‘지금

배달’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광고 솔루션 ‘엔클루(NCLUE)’를 활용해 고객 분석에 나선다.

이와 함께 ESG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네이버 플랫폼의 우수 판매자에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판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의 오프라인 인프라와 네이버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팀네이버의 기술 역량과 롯데의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AI 쇼핑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세븐일레븐, 한 달간 파우치 음료 할인

벤티사이즈 커피 등 2+1 행사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9월에도 이어지는 늦더위에 맞춰 이달 한 달간 파우치 음료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행사에서 총 14종에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벤티사이즈 커피 2종과 델몬트 망고에이드, 퍼플레몬에이드, 비타민 음료 레모나 등 5종에 대해 2개 구매 시 1개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벤티블랙아메리카노’, ‘Big복숭아 아이스티’ 등 9종 상품은 1만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정상이 대비 평균 10% 저

렴한 가격이다. 여기에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20% 추가 할인이 더해져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파우치음료는 얼음컵과 함께 즐기는 편의성과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종류를 앞세워 편의점 대표 여름 상품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집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마시는 수요가 늘며 대량 구매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평균 최고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 실제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지역의 평균 최고기온은 30.7도를 달했다.

/손종욱 기자

쿠팡, 1만개 소상공인 中소로 키웠다

연매출 30억 소상공인 2000곳 연간 30%수준 거래액 성장세

쿠팡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 매출 30억원을 돌파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입점 소상공인이 1만개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내수 부진으로 국내 소상공인 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쿠팡 플랫폼이 성장의 발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쿠팡 측은 밝혔다.

실제 국내 소상공인의 성장세는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 소상공인의 분기별 합산 연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쿠팡에서 연 매출 30억원을 넘어선 소상공인 2000여곳은 연 30% 수준의 거래액 성장세를 보였다.

쿠팡 측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1만여 업체 중 70% 이상이 비서울 지역에 위치했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비서울 지역 업체 비중이 80%에 육박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쿠팡을 통해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착한상점’ 등을 통해 입점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8월 시작한 착한상점의 누적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3조원을 돌파했다.

/손종욱 기자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쇼라’서 이탈리아 특집방송 편성

현대홈쇼핑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채널 ‘쇼라’에서 ‘글로벌 쇼라직구’ 이탈리아 특집 방송 총 6편을 편성한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쇼라직구는 지난해 8월 처음 선보인 해외 현지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고객 호응이 높았던 브랜드를 중심으로 앙코르 방송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6개 브랜드의 상품을 소개하며, 현대홈쇼핑은 해당 브랜드들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쇼라직구’는 진행자가 해외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탈리아 방송에서는 프랑스 캐시미어 브랜드 ‘에릭봉파르’(8일),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자야니 까아리니’(10일)와 ‘볼드리니’(12일) 등을 소개한다. 모든 방송은 각 브랜드의 이탈리아 현지 매장에서 진행되며, 시청자는 현지 매장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홈쇼핑이 앙코르 방송에 나선 것은 프로그램의 성과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글로벌 쇼라직구’의 생방송 회차당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이번 특집 방송을 기점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 횟수를 주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외 식재료 등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일본 한큐백화점과 협업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부담없이 휴식·산책 즐기세요” 유통업계, ‘체류형 공간’ 확대

이마트 커뮤니티 라운지 강화
더현대서울 영업면적 절반 휴게공간
CU 전국 매장 폭염대피소 운영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매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품 구매를 위해서 뿐 아니라, 휴식이나 산책 등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영업 면적 안에 체류형 휴게 공간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경산에 스타필드마켓 4호점을 선보였다. 지난해 8월 죽전에 1호점을 선보인 이래 빠른 속도로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스타필드마켓은 매장의 핵심 공간을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로 꾸민 체류형 복합 공간이다. 매장 내에 휴식 공간인 북그라운드와 있는 게 특징이다. 북그라운드에선 따로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가만히 소파나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다. 경산점은 205평에 달하는 큰 북 그라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필드마켓은 새 단장 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점한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올해 2분기 매출과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04%, 82% 증가했다. 올해 6월 문을 연 일산점은 1달 간 매출이 39%, 방문객 수는 67% 늘어났다. 동탄점은 지난



마트 내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스타필드마켓

/뉴시스

7월 31일 개장 후 2주간 매출이 52%, 방문객 수는 18% 증가했다.

더현대 서울은 영업 면적의 절반 가량을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닌 고객 휴게 공간으로 채웠다. 사운즈 포레스트, 폭포, 벤치 등 쇼핑 중간 공원처럼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2023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전주점을 새 단장한 후 1층에 휴식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마련했다. 시그니처 카페가 있어 쇼핑하면서 동시에 쉴 수 있는 공간이다.

CU는 올해 여름 전국 점포를 폭염 대피소로 운영하며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트렌드 미디어 ‘캐릿’은 이처럼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쉴 수 있는 요

소를 갖춘 공간을 ‘냅 스페이스(Nap Space)’라고 정의했다. 체형형 팝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도심 속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휴식 공간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늘어나는 이유를 두고 업계에선 고객들이 온라인 공간과 다른 차별점을 둔 공간을 찾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장을 보는 것 자체는 온라인 마켓에서도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휴식이나 다른 즐길거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자연스럽게 장을 보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지향한다”며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까지 오게 만드려면 상품 구매 외에 다른 특별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GC녹십자, ‘GC1130A’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후보물질〉

품목허가 수수료 감면 등 혜택
허은철 대표 “개발속도 빨라질 것”

GC녹십자는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후보물질 ‘GC1130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향후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 수수료 감면, 조건부 허가 신청 대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은 유병 인구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적절한 치료 대안이 없거나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산필리포증후군 A형은 유전자 결함



GC녹십자 본사 전경.

/GC녹십자

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심각한 뇌 손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다.

GC녹십자는 현재 미국, 한국, 일본에서 ‘GC1130A’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 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GC1130A’는 GC녹십자가 독자 구축한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을 갖췄다.

‘GC1130A’는 앞서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도 희귀의약품 및 소아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는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웅제약, ‘펙수클루’ 中 품목허가 획득

2026년 하반기 중국 발매 예정

대웅제약은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적응증은 역류성식도염이며 중국 발매 일정은 오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출시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

-CAB) 계열의 3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펙수클루는 약물 반감기가 길어 지속적인 산분비 억제 효과를 발휘해 ‘야간 속쓰림’ 개선에 탁월하다. 또 동일 계열 약물 중에서 위산 역류에 따른 ‘만성 기침 완화’ 효과를 임상적으로 입증한 유일한 치료제다.

대웅제약은 이번 중국 품목허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100개 국

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도,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등 6개 국가에서 출시됐다. 파나마, 콜롬비아에서는 품목승인이 완료돼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중국 품목 허가는 펙수클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 항체양제 시장인 중국에서 펙수클루가 환자와 의료진에게 가장 신뢰받는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온 온페이스’ 첫 공개

IFA 2025

3770개 마이크로 LED가 빛 전달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 국제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의 신제품 ‘온페이스’를 최초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온페이스는 고급 마스크 디바이스로, 3770개의 마이크로 LED가 얼굴 전체에 빈틈없이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췄다. 한 장 구조의 LED 패널과 자유롭게 휘어지는 소재가 피부 곡면에 밀착돼 제품 효능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인체 피부 조직 모델 시험 결과에서 피부 깊은 층의 엘라스틴 생성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또 모공 부피·밀도, 피부 치밀도 등에서 일시적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현장에서도 온페이스를



메이크온 ‘온페이스’

/아모레퍼시픽

직접 체험한 방문객들이 착용감 등 제품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방문객들은 ‘기존 LED 마스크와는 다르게 불편함이 없었다’, ‘수많은 LED가 얼굴 전체를 비춰서 집에서도 전문적인 수준의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0월 한국 시장에 온페이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향후 유럽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평균 근속연수 12년8개월

제약업계 최고수준 기록

유한양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8개월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평균 근속연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고용, 임금, 승진, 교육 등 인사영역 전반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이사 와 3·4급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운영위원회’, 사원 대표와 임원이 참여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도입해 직급, 성별, 나이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했다.

또 노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근로조건 개선 안건을 협의한다.

장기근속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 근속자 표창, 포상휴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창립기념일 행사에서는 30년, 20년, 10년의 근속사원 160명 등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패와 상금, 유급 휴가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리뉴얼 데이(매월 첫째 주 금요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도 적극 지원해 자녀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직장 어린이집, 임산부 전용 주차장 등을 갖췄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는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한 협력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이뤄진다”며 “이를 위해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LG생진, 더후 ‘비첩 자생 에센스’ 한정판

황혼·여명 표현… 90ml 대용량 구성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력서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에서 ‘비첩 자생 에센스’ 15번째 특별 한정판(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더후 비첩 자생 에센스는 고효능 항산화 화장품이다. LG생활건강이 독자 구축한 저속 노화 핵심 성분 ‘NAD 파워 24’를 10%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한방 성분인 윤설파과 감초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피부 재생 효과를 갖췄다.

올해로 15번째 선보이는 비첩 자생 에센스 특별 한정판은 낮과 밤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한 피부 관리에 중점을 뒀다. 광노화 유발 조건에서 해당 제품 사용 12시간 후를 평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피부 장벽, 보습, 윤기, 탄력, 항산화, 피부 결, 진정, 투명도 등이 개선됐다.



평소에 자주 밤을 새는(밤 12시 넘어서 취침 또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도, 피부 장벽, 보습, 피부 결 등이 나아지는 결과가 확인됐다.

용량은 정품(50ml) 대비 약 2배 증량한 90ml 대용량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제품 디자인에는 해질녘 황혼의 잔광과 희미하게 밝아 오는 새벽녘의 여명을 표현한 색채가 담겨 소장가치를 높인다.

/이청하 기자

Since.1976

편안함이 다르다
GRAND BED



 그랜드침대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aT-농식품부, 고령층·영양사에 국산 콩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을 통한 국산콩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고령층 2000여 명 및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4일 전북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aT



시멘트업계, 강릉 가뭄에 생수 6만병 전달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강원지역기금위원회, 한라시멘트와 함께 강원 강릉시청에 생수 6만병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왼쪽부터)강릉기금관리위원회 심교화위원장, 강릉시 김상영 부시장,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심용석 사무총장, 한라시멘트 신승근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현대차, '캐스퍼 취향 충전소' 팝업 전시 진행

현대자동차가 오는 14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썬에서 '캐스퍼 소셜 클럽: 캐스퍼 취향 충전소'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캐스퍼 오너들의 다양한 카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캐스퍼만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취향도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현대차



BNK부산은행, 지역 축제 후원금 3.7억 전달

BNK부산은행은 부산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3억7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방성빈 BNK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네번째), 남덕현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NK부산은행



건국대-신한은행, 상호 공동발전 '맞손'

건국대학교가 지난 4일 건국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원종필 건국대 총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은행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건국대

유통업계, 생수·구호물품 기부로 강릉 가뭄극복 힘보태

쿠팡, 2리터 생수 20만병 지원
신세계, 총 27만병 생수 전달
BGF리테일·GS리테일도 기부

강원도 강릉시(강릉)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지원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쿠팡,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기업들이 전국 단위 물류망을 활용해 생수 등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병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쿠팡은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3일 이마트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 스타벅스를 통해 7



가뭄 상황 속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물품의 모습.

/뉴시스

만5000병 등 총 27만 병의 생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달한다. 강릉 지역 스타벅스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직접 생수를 배달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3일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한 국가 재난 긴급 구호활동 'BGF 브릿지'를 즉각 가동했다. BGF로지스 강릉물류센터에서 생수 3000여 개를 긴급 배송하며 현지 상황에 대응했다. BGF리테일은 2015년부터 업계 최

초로 정부와 재난 구호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만 8000여 개 점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최민건 BGF리테일 ESG팀장은 "행정안전부 등과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GS25와 GS더프레시 등 자사 인프라를 활용해 2리터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05년부터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마다 구호 물품을 지원해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사업망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

LG, 청년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LG 에이머스 해커톤’ 열어
4개 계열사, 채용 박람회 참여

LG가 청년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LG는 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해커톤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7기 지원자 2570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102명이 참가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주제는 LG 계열사인 디앤오(D&O)가 출제한 '곤지암 리조트의 식음업장을 찾는 고객들의 메뉴 수요 예측 AI 개발'이다.

휴양지 리조트 내에 있는 식음업장의 수요는 요일과 계절, 연휴 일정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 각 업장별로 고객층과 메뉴 구성, 운영 방식이 달라 고객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 및 AI 역량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곤지암 리조트의 방문객 수와 업장별 매출 데이터 등 실제 리조트 데이터를 활용해 식자재 관리, 효율적인 인력 배치,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LG는 대회 이튿날인 7일 LG AI연구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4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LG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 서울 마곡 LG AI연구원 본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환경부, 아·태 기후변화 대응 현황 점검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

환경부가 이달 8~9일 이틀간 태극방콕에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에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다.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진공, 숯품 통해 골목상권 매력 알린다

국민참여 숯품 공모전 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경이로운 소비 국민참여 숯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는 공모전은 ▲전국 야시장 숨은 맛집 ▲우리 동네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 구매후기의 세 개 분야로, 국

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10월15일까지 주제별 숯품 영상을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작품은 1차 위원회 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친다.

소진공은 접수받은 제안 내용에 대해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소진공 이사장과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쓰오일, 생성형 AI 활용 숯품영상 공개

황쏘가리 치어 방류 현장 재구성

에쓰오일(S-OIL)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숯품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회공헌 활동 현장을 사진으로만 기록해왔으나 영상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확산에 나섰다.

최근에는 임직원 가족과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이 참여한황쏘가리 치어 5000 마리 방류 봉사활동 현장을 AI로 재구성해 스토리텔링 영상으로



에쓰오일, ESG 가치 담은 AI 숯품영상.

/에쓰오일

제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또한 본사 사옥 글판의 계절별 메시지를 AI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선보였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파이낸셜뉴스 △도쿄특파원 서혜진

부음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인지그룹 회장)씨 별세, 김옥환 씨 배우자 상, 정혜승, 정장환, 정혜은 씨 부친상,

이철희, 김우석 씨 빙부상 = 6일 별세,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9일. 02-2258-5940

▲강명자씨 별세. 최해덕씨 부인상, 최현석(고용노동부 대변인)·최현철씨 모친상, 김소영씨 시모상 = 7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044-863-4444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에센 융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2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3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4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5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6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7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8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9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0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1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12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13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14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알고보니 회생채권자 아닐 때, 돈 갚아야 하나?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요새는 채권, 채무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나 신탁 등이 거래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다.

주식회사 A는 B 은행으로부터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했고,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C가 설립되었다. C 법인은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어받아 B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A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에 접어들게 되자 B은행과 C법인이 각각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A는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되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부인했고, 그대로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 A가 “위 회생채권의 채권이 실제로 B은행의 것이지 C법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C법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이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 즉, 그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첫 번째, 주식회사 A의 소송은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를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불가쟁의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언제든지 진실된 채권, 채무관계와 다를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 민사상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스스로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고 B 은행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했다. 실제로 유동화대출거래에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어 채권자 확정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다. B 은행은 주식회사 A가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 주식회사 A가 C법인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A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은행이 회생채권자 지위의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A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인 C법인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뒤집고 C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B은행과 C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C법인이라도, 이런 경우 주식회사 A는 회생계획에 따라 C법인에 성실히 변제해야 한다. 복잡한 금융거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바른

금융해킹, 과징금이 능사일까



기지 수첩

안 재 선
(유통&라이프부)

제2 금융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반복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기업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고작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저축은행, 롯데카드까지 제2 금융권에 서만 3건의 해킹 피해가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사고를 낸 은행권에 최대 2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의 초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하는 동시에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사고가 제2 금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면,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특히, 제2 금융권 중 중소형 기업은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 금융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금융 보안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 사후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2 금융 중에서도 작은 기업의 경우 재무를 관리하는 인력조차 부족한 곳이 있다”며 “이들이 금융 보안 사고에 가장 취약할 텐데, 여기에 보안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요 대형 금융권 사이에서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모든 접근 요청에 대해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는 보안 모델이다.

문제는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IT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제로트러스트의 경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며 “또, 도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사후 규제를 가하기 전에 중소형 은행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는 것이 먼저기 때문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8일 (음 7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신규투자는 신중. 48년생 어려운 사국이지만 태양은 늘 누구에게나 비추게 마련. 60년생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72년생 얼룩이 발견되면 처리해야 하는데. 84년생 살아보니 무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도 기회가 된다.



37년생 사회생활은 공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49년생 누구가의 도움으로 오후 재물 들어온다. 61년생 비뻔한 일을 만나면 먼저 발등을 손질. 76년생 실패한 거사니 겹는다. 85년생 나이는 공로로 먹는 게 아니니 나이 값을 해라.



38년생 인생은 각본 있는 드라마. 50년생 뜻대로 되는 일이 펼쳐진다. 62년생 재물이 부족한 팔자는 남보다 가난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74년생 실력이 승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으나. 86년생 봄꽃이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39년생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라 했는데. 51년생 자신의 인생이라 해도 남의 시선은 생각해야. 6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자신. 75년생 부지런하면서 분수를 지키면 보통은 간다. 87년생 환경을 탓하며 고인하지 말라.



40년생 결혼한 자에게 부부일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52년생 위기를 기회로 필승전략을 세우자. 64년생 꿈을 얻으려면 먼저 발등을 손질. 76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88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41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53년생 운이 상승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65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쉽다. 77년생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으니 기회는 공평. 89년생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42년생 모두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 54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66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78년생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90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43년생 영업발전 소득발생. 55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음주과식하지 마라. 67년생 세상의 틀은 있지만 알 수가 없다. 79년생 불행 말고 퇴근하고 부모님을 살피도록. 91년생 공덕은 부메랑처럼 나를 찾아와 복된 운세를 불러들인다.



44년생 자연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평하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56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68년생 아직보다는 실력을 기우자. 80년생 굶은 길에서 선두를 추월하는 이 치료 기회는 오기마련. 92년생 인생의 1순위는 항상 자신일 수밖에.



45년생 조상님의 제사를 정성으로 하면 나에게 축복이다. 57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피의 도움으로 거래성사. 69년생 양보로 얻겨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81년생 저녁 7시 불길하니 다루지 마라. 93년생 어제의 고난이 오늘 힘을 가져온다.



46년생 바쁜 친구에게 전화질 말라. 58년생 동료를 시기하는 마음은 내복을 차버리는 행동인데. 70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82년생 세속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으니 준비하고 기다리자. 94년생 병도 약도 다 내가 할 탓.



47년생 무시를 해도 일단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59년생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71년생 회사에서 내 것 아닌 것도 아끼는 작은 배려를. 83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금해하지 마라. 95년생 곤은살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김상회의四季

도화, 귀문

말 오후의 불침화針(바늘침)은 색정 문제로 인한 고난을 예고하여 욕궁화기는 사치와 허영을 암시하니 유의할 일이다. 귀문은 팔괘八卦(여덟팔,괘)에서 비롯됐다. 육신의 경계를 초탈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땅을 밟고 산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보고 그릴 수는 있지만 평면의 속박은 벗어날 수가 없다. 풍수風水의 기본으로 동서북배합東西不配合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命理에 적용해서 대궁對宮을 정하면 지지支 상호간에 될 수 있으면 보아서 안 될 鬼門과 원진怨憤(원망할 원,성발진)의 글자 조합이 성립된다. 인간의 기이奇異(기할기,다름이) 한 심리적 변화가 증폭되는 글자 조합이다. =鬼門은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다툼 불화를 야기하고 두뇌와 심리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살성으로 두뇌 회전이 신속하지만 심리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신경 기능의 이상을 일으킨다. 운이 나쁘면 성적 도착증이나 비탄에 빠져 심하면 자살을 감행하는 동기가 작용된다.

오늘은 도화의 날로, 도화하면 우선 색이 생각났는데 색정을 너무 밝히면 남녀공이 어느날 하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평소 건강을 점검해보자. 반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나 상당한 기술력의 직업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명예 기술 체육계 기타문화계의 상징인 자유로움을 인수인 질서로 끌어안게 되고 음기淫氣(음란함)를 정화함으로써 상당한 명예를 얻고 고위직에 오르게 된다. 끊임없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을 한, 기도자에게 들어주게 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도 神의 세계는 있었으며 산신기도 용왕기도 조상기도 칠성기도등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대표하는 기도가 되어 왔다. 이렇듯 유전자적인 귀문 원진 선함과 숙명적 흥의는 신앙信仰으로 극복할 수가 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5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1	8	6	2	8	9
8	6	2	1	8	9	7	8
6	8	9	8	9	2	1	7
8	1	7	2	1	8	6	9
9	8	7	1	8	9	2	6
2	9	8	6	9	7	8	1
7	8	6	9	2	9	8	1
8	2	9	7	1	8	6	2
1	9	8	6	2	7	9	2

7	8	9	2	8	1	6
8	2	1	9	8	6	9
8	7	6	9	1	8	2
6	9	2	8	1	7	8
8	1	2	8	6	9	7
9	9	8	2	7	1	6
9	8	7	6	8	2	9
1	6	9	7	2	9	8
2	8	1	9	8	6	7

인서울 최저 합격선 ‘216·212’ 전국 의대 276~292 분포 전망

〈인문〉 〈자연〉

9월 모의평가 분석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기준

의대 정원 축소·고3 증가 등 영향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 높아질 것”

지난 3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연고) 인문계열 최저 합격선은 259점, 자연계열은 266점으로 예측됐다.

전국 의대는 최고 292점에서 최저 276점까지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의대 정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7일 종로학원이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총 300점 기준(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I 50점, 탐구 II 50점)으로 분석한 결과, ‘인서울’ 최저 합격선은 인문계 216점, 자연계 212점으로 전망된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는 서연고 인문 261.5점, 자연 269.6점, 인서울 인문 219.5점, 자연 221.4점으로 나타났다. 서연고를 제외한 주요 10개 대학은 인문 254.8점, 자연 260.3점으로 분석됐다.

최저 점수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은 260점, 자연 266점,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 259점·자연 266점, 성균관대 인문 256점·자연 257점, 서강대 인문·자연 모두 257점으로 전망됐다.

인문계열 상위 학과는 서울대 경영대 학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고려대 경영은 각각 260점, 성균관대 글로벌

〈주요 대학 별 정시 합격선(국수탐 원점수 기준)〉

/종로학원

구분	인문			자연		
	학과평균	최고학과	최저학과	학과평균	최고학과	최저학과
서울대	267.7	285	260	273.3	292	266
연세대	259.4	260	259	267.6	288	266
고려대	259.4	260	259	266.9	286	266
성균관대	257	259	256	265	286	257
서강대	257.4	259	256	260.9	266	257
한양대	256.1	259	255	262.4	286	257
중앙대	255.2	256	255	256.9	283	246
경희대	253.8	286(한의) 255	247	254.8	283	243

경영 259점, 서강대 경영학부 259점, 한양대 정책학과 257점, 중앙대 경영학부(글로벌금융) 256점, 경희대 경영학과 255점으로 예상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9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각각 26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6점,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261점,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266점,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257점, 경희대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251점 등으로 예측됐다.

의대는 서울대 292점, 연세대 288점, 고려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가 286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2점에서 276점까지 합격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치대는 283~272점, 한의대 276~269점, 약대 279~266점, 서연고 이공계는 281~266점으로 분석됐다.

2026학년도 의대·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 반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 7000명 늘어나면서 내신 상위권 학생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권 의대는 지방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정원은 줄었지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전체 지원자 수는 감소하더라도 수시 전체 지원자 수는 고3 증가 효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74대 1, 경인권 12.99대 1, 지방권 5.99대 1이었으며, 올해 역시 서울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정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가 맞물리면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연말까지 신고 접수… “철저히 조사”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 비



리 신고센터로 비리 주제,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

시각장애 학생들 체육활동 활성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맞춤형 교재, 전문 지도, 무대 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빛맹학교 학생 7명에게 맞춤형 점자 교본을 제작해 제공하

고, 한국체육대학교의 전문 품새 지도를 연계했다.

오는 8일 한빛맹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개학식에서는 방송인 이동우의 사회로 품새 발표 무대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점자 교본은 국기원 태권도 품새 실기 교수설성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단순한 동작 학습을 넘어, 손끝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태권도를 익힐 수 있도록 특별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웅진군민의 집’ 본격 운영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날이 잦은 웅진군 주민들을 위한 복합복지시설이 인천 연안부두에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웅진군은 지난 5일 ‘웅진군민의 집’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웅진군민의 집은 연간 평균 22%에 달하는 여객선 결항률로 인해 육지 체류에 어려움을 겪던 웅진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성됐다.

인천시와 웅진군은 시비 20억 원과 군비 23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중구 향동7가 옛 센트로호텔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켰다. 건물 연면적은 1,158㎡에 이르며, 총 28실의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됐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양천캠퍼스’ 개관

데이터분석가 등 3개 과정 운영
연내 구로·중랑 캠퍼스 추가 개관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1차지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완성을 앞두고, 서남권 청년들의 AI·디지털 인재 성장을 책임질 양천캠퍼스를 연다.

서울시는 8일 청년취업사관학교 23번째 캠퍼스인 양천캠퍼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조성한 청년 인재 양성기관으로, 2021년 영등포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2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누적 취업률 75%의 성과를 내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양천캠퍼스는 연면적 794.53㎡ 규모로, 3개의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 공간, 휴식공간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지하



청년취업사관학교 양천캠퍼스. /서울시

철·버스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양천보건소 건물에 위치해 구청·보건소·경찰서 등 관공서 단지와 양천공원, 상가단지 등 교육생에게 편리한 주변 환경을 제공한다.

강의실에는 AI·디지털 교육에 최적화된 PC가 구비돼 있다.

양천캠퍼스에서는 12월까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AI 기획 및 데이터분석가과정

▲글로벌커머스MD/BM 양성과정 등을 운영, 사전 모집을 거쳐 선발된 75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양천캠퍼스 개관 이후 연내 구로·중랑 캠퍼스를 추가 개관해 ‘1차지구 1 캠퍼스’ 체계를 완성하고, 청년 AI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출범 4년 만에 누적 취업률 75%라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AI·디지털 인재 양성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양천캠퍼스 개관과 매칭데이 개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취업 기회를 더욱 넓히고, 교육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美 언론 “韓 기업 공장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 시험대”
▲“곰팡이·벌레 득실”…한국인 대거 구금 美 ‘폭스톤 수용소’, 열악 실태

▲“트럼프, 10월 APEC 정상회의 방한 준비…“경제 협력 논의 초점”
▲미국 파월볼, ‘2조 4800억원’ 잭팟 터졌다…텍사스·미주리서 동시 당첨



▲러, 침공 후 최초 우크라이나 정부청사 직접 타격… 2명 사망·15명 부상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미국방부 홈페이지 ‘전쟁부’로 신속 개편

/사진 뉴스



친환경·출제제한
주류·SSM '긴장'
L1

metro®

Life

“부담 없이 휴식을”
체류형 공간 확대

L2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채용 나서야 행복한 일터 열린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향기내는사람들
임 정택 대표

“모든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동참하고, 도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 해소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돼 있고, 모든 사회 문제 끝에는 아직도 장애인이 남아 있다.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히즈빈스) 대표는 진취적으로 그들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꿈과 강점을 파악해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성을 끌어낸다. 모든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2009년 첫걸음을 뗀 향기내는사람들은 현재 국내외 38곳에서 약 165명의 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 진한 가능성을 우려내고 있다.

◆국내 정신 장애인 직업 유지율 18%, 히즈빈스는 95%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던 임 대표는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08년 ‘타임머신’이라는 아이টে이프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가했다. 당시 교류전에서 만나게 된 한 중국인 동갑내기 친구의 꿈을 사과의 전환을 발생시켰다. 임 대표는 “그 중국인 친구는 중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다”며 “누군가 아이টে이를 말할 동안 꿈에 대해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되돌아봤다.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인생의 소명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히즈빈스 1호점은 한동대학교점점으로, 4명에서 시작해 11명까지 확장됐다. 당시 포항 시장의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포항시 곳곳으로 매장을 넓혔지만, 그게 위기의 서막이 됐다. 임 대표는 “2~3년 뒤에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이 왔고, 재계약은 가능했지만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수익원의 자본은 큰 부담이었다”며 “히즈빈스의 원칙상 장애인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으로 챙겨 줬고, 이후 매니저와 본사 직원들의 급여를 메꾸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임 대표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생계적인 부담에 부딪혔지만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1년 반의 시간을 묵묵히 버텼다. 그는 “장애인 친구들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기 위한 시간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버거웠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악화돼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이 일은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다.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의 행



해고 없는 일터 17년, 장애인 주체로 세워
국내 직업 유지율 18%, 히즈빈스는 95%

다각적 지지 시스템, 고용 안정 특허 확보
장애인도 강점 존중받아 전문가로 성장 가능
기업 고용 부담금 연 1조, 해법은 채용 전환

현대차·SK·롯데 등 30개 기업 사내 카페 운영
복지 확대·부담금 절감·일자리 창출 동시 실현
전 세계 1억명 행복한 일터… 비전 2040 목표

복을 느끼며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해 줬다”고 말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인고의 시간 끝에 한 다큐멘터리가 히즈빈스를 주목시켰다.

국내 정신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다뤘던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는 정신 장애인 직업 유지율이 한국은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50%에 그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카페 사업이 중점인 히즈빈스는 모든 바리스타를 장애인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음에도 직업 유지율이 95% 수준으로 우수했다. 그리고 창립 17년을 맞은 현재까지 90%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연구에 평생을 바친 미국 교수의 방문, 미국 정신재활협회에서의 발표 등이 진행되면서 2년 반 만에 흑자전환됐다.

◆“기업의 고용 부담금을 해결해 드립니다”… ‘원원’ 하는 장애인 고용 전략

임 대표는 장애인들의 꿈과 강점을 주목한다면 얼마든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히즈빈스는 성장통을 정면으로 직면하며 장애인들이 온전히 자신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창

업 초반에는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을 일대일 멘토로 매칭하는 ‘짝꿍’ 제도를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다각적 지지 시스템이란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이해관계자가 지지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 직원들이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함께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특허청으로부터 장애인 고용관리 관련 특허를 받았다.

임 대표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문화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일하는 부분에서 강점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문화 시스템만 잘 적용된다면 전 세계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페로 시작했던 히즈빈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이행하지 못해 수백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이는 부담금은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대표는 “1조원의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졌다면,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기업 맞춤형 장애인 고용 교육·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임 대표는 장애인 고용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원원(win-win) 사업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현재 히즈빈스는 현대차그룹, SK, 롯데, 두산, 와디즈 등 30여개 기업에 사내 카페로 들어가 있다.

그는 “해당 기업 내 직원들은 사내 카페로 인한 복지를 얻게 되고, 기업들은 매년 내던 고용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고용 문화의 롤모델을 만들어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셰프, 파티쉐 등 식음료(F&B) 시장에서의 장애인 전문가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레스토랑의 경우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점에서 처음으로 셰프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겨울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공간 매니저, 플랜테리어 등 기업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테스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는 여정… 전 세계 12억 장애인의 꿈을 위해

지난해 히즈빈스는 ‘비전 2040’을 선포했다. 전 세계 12억 장애인 중 1억명 이상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관리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 100가지 직무를 개발해 7000명의 장애인 롤모델을 양성하는 것, 5만명을 교육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학교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총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갖고 있다.

임 대표에게 향기내는사람들은 구성원과 고객들이 정말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성장하길 바라는, 좋은 회사이자 도구라고 말한다. 그는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10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차별당했지만 이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소외돼 있다”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90%가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했고, 그렇다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본인의 꿈과 강점으로 성장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위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고, 롤모델도 필요하다”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호날두 A매치 140골’ 포르투갈, 월드컵 예선 대승… 잉글랜드도 웃어

▲한국 U-17 핸드볼 대표팀, 아시아선수권 초대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사격 김민수, 남자 스키트서 7년 만에 한국 타이 기록

▲한국 남자 하키, 말레이시아 누르고 아시아컵 결승 진출

▲사발렌카, US오픈 단식 2연패… 테니스 메이저 4회 우승

▲한화 ‘복덩이’ 리베라토, 1군 복귀… 한승혁은 휴식 차원 말소